

**The Gospel of Mark**

Sermon 62 – Sermon Notes

Title: “Only God knows when”

Scripture: Mark 13:32-37

Date preached: November 12<sup>th</sup> 2023**Scripture: Mark 13:32-37**

**32 “But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33 Take heed, watch and pray; for you do not know when the time is. 34 *It is like a man going to a far country, who left his house and gave authority to his servants, and to each his work, and commanded the doorkeeper to watch. 35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is coming—in the evening, at midnight, at the crowing of the rooster, or in the morning— 36 lest, coming suddenly, he find you sleeping. 37 And what I say to you, I say to all: Watch!”***

32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3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 때가 언제 인지 너희는 모른다. 34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35 그러므로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라. 집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37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 있어라!”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few minutes to review what we spoke about last time.

Its still the Tuesday of Passion Week. We find ourselves probably on the eastern slopes of the Mount of Olives overlooking the temple. The Lord Jesus is surrounded by His disciples. This beautiful and tranquil location will be the setting for Jesus to present a very important and significant address. We refer to it today as the Olivet Discourse. The discourse is triggered by questions from four of the disciples. Peter, James, John and Andrew question Jesus on His pronouncement regarding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and the signs to look out for.

Last time we looked at what Jesus said regarding His second coming. Let's just recap what will happen at this time. This is a complex and detailed subject so what follows is the abridged version.

As believers (the church) we are awaiting the return of our Lord and saviour. As I have noted before this is imminent meaning that it could take place at any time. At any moment Jesus could return for the church (the elect) in order to rapture or snatch them up from the earth.

At the rapture the Lord Jesus will only be seen by believers. When we see Him we will leave this earth to join Him in the air. Unbelievers will be left wondering where millions of people have gone. My strong suspicion is that this disappearance will be explained away by aliens.

The news lately has been full of former military servicemen revealing the “reality” of aliens, and saying that governments know more than they are letting on. This I believe will all be a part of the great end times deception.

Some time after this the world and it's remaining population will enter the seven year period of tribulation. This time, as its name suggests will be a very difficult and troubling age during which God will pour out His divine judgment on sinful humanity. This tribulation period is divided into two. In the first three and a half years there will be the rise of a charismatic global leader (the Antichrist). He will promise to bring about global harmony and reconciliation and will orchestrate a peace treaty with Israel.

The second half of the tribulation known as the Great tribulation will see the peace treaty with Israel broken. The Antichrist will reveal who he really is in an event known as the abomination of the desolation. This involves the Antichrist appearing in the temple and claiming to be god (2 Thes 2:4). The Jewish people will be scattered, and many of them will turn to Jesus, realizing finally that Jesus Christ is truly their Saviour. Also at this time a great persecution breaks out against all those who believe in Christ.

It is at the end of this three and a half years that Jesus returns in great glory to earth. When He first came to earth He arrived in very humble circumstances in the town of Bethlehem. When He returned for the church at the time of the rapture only we saw Him. At His second coming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all will see Him. Riding in great splendour and glory on a white war steed. He will come accompanied by the church and the great angelic host. That means that we will accompany Him riding on our own warhorses. Let me read you what God reveals about this time in His Word.

**13 He was clothed with a rob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14 And the armies in heaven,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followed Him on white horses. 15 Now out of His mouth goes a sharp sword, that with it He should strike the nations. And He Himself wi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He Himself treads the winepress of the fierceness and wrath of Almighty God. 16 And He has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Rev 19:13-16)**

That passage certainly excites me and it should also excite you. The terrible time of the tribulation will come to an end. Following the battle of Armageddon the glorious 1000 year reign of Jesus begins.

Following Jesus' teaching about His second coming He will go on to give them two parables to drive home the point. We will look in some detail at the second in a moment. Let us turn to the first which we looked at last time.

The first parable concerns a fig tree and regards what we lessons we can learn from observing it. In essence the purpose of the parable is a warning to us to remain vigilant and take our cues from the surrounding signs. There are many things we can learn from observing the natural world. Today living as we do surrounded by vast acres of concrete most of us are divorced from nature. This was not the case for our ancestors. They lived with and among nature. They recognised how subtle changes were often a sign of more significant events to come. So when Jesus spoke of the fig tree His hearers knew exactly what He meant. The fig tree unlike many of the trees in Palestine is not an evergreen. It sheds its leaves in autumn and remains barren until late spring. In late spring shortly before the start of summer its leaves return. So seeing the leaves appear is a sign that the hot and oppressive days of summer are soon to arrive.

The meaning of the parable is obvious. God's Word reveals many of the events that take place during the tribulation. Those living through these difficult times can look to the signs to indicate exactly where they are along the timeline of the tribulation. Those who are living and who have co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will naturally at this time feel great terror and despair. We should be so thankful that our merciful God is removing us from this terrible time. When those living in the tribulation experience these strong emotions they should look to the signs and remember that the time is short. They should do all they can to ensure their own survival so that they can be there when Jesus returns.

Today we will conclude the Olivet Discourse by looking at the second parable that Jesus gives.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고난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아마도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동쪽 경사면 근처 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이 아름답고 조용한 장소는 예수께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감람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은 네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성전 파괴와 눈 여겨 보아야 할 표적에 관해 예수님께 더 질문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일어날 일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상세한 내용이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는 자(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주님 구원자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임박 **imminent**, 즉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곧 예수님은 교회(택하신 자들)를 위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땅에서 휴거시켜 데려가실 것입니다. 휴거 때에 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이 땅을 떠나 공중에서 그분과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실종이 외계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전직 군인들이 외계인의 '현실'을 폭로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엄청난 속임수의 일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세계와 그 남겨진 사람들은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류에게 신성한 심판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이 환난 시기는 두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3년 반 동안 카리스마 넘치는 세계적인 지도자(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화합과 화해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조율할 것입니다.

대환난으로 알려진 환난의 후반부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이 파기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나타나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포함됩니다(살후 2:4). 유대 민족은 흩어질 것이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들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때에 그리스도를 믿게된 모든 사람에게 큰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후반부의 삼 년 반이 끝날 때에 예수께서는 큰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의 매우 초라한 환경에 오셨습니다. 휴거 때 그분이 교회를 위해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분을 볼 것입니다. 환난 끝에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큰 위엄과 영광으로 교회와 더불어 많은 천사의 군대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군마를 타고 그분과 동행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에 관해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13 그는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니라. 15 이제 그**

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시리라. 16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이름이 적혀 있으니: 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님.

(계 19:13-16)

그 구절은 확실히 저를 흥분시키고 여러분도 흥분시킬 것입니다. 끔찍한 환난의 때가 끝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000 년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관해 가르치신 후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요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난 주에 살펴본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것이며,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비유의 목적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주변 표적이 주는 신호를 알아차리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광대한 콘크리트 땅에 둘러싸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과 단절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변화가 다가올 더 중요한 사건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많은 나무들과는 달리 무화과나무는 상록수가 아닙니다.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까지 잎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직전인 늦은 봄에 잎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나뭇잎이 보이는 것은 덥고 숨막히는 여름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알려 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 환난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살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은 당연히 큰 공포와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끔찍한 시대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 분명 감사해야 합니다. 환난 기간을 살아갈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을 경험할 때 표적을 보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비유를 보면서 감람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Introduction**

Have you ever heard of Harold Camping? I'm sure he did many memorable and significant things in his long life but sadly for him he's only really remembered for one thing. Let me tell you his story. Harold Camping was a radio preacher from California. He is best known for falsely predicting the rapture and the beginning of the tribulation. In 2005 the 84 year old Camping became convinced that the precise date for the beginning of the tribulation was May 21<sup>st</sup> 2011. This meant that Jesus was set to return to earth in 2018. He told anyone who would listen that there would be a terrific earthquake that would signal the beginning of the time of judgement. He was so convinced that he invested almost 100 million dollars into an advertising campaign to spread this news. He produced posters and displayed them on around 5000 billboards. He also hired a fleet of vehicles to drive around promoting his message.

May 21<sup>st</sup> 2011 came and went. There was no giant earthquake. Christians were not raptured. It was

just an ordinary day. At first Camping tried to explain things away by saying it was really a "spiritual" Judgment Day (how convenient). Eventually, in 2012 Camping admitted he had been wrong but by then the damage to his reputation was too great. The radio company severed its connections to him, and he never broadcast again. Camping probably should have spent more time reading his bible. Especially Mark 13 verse 32.

It's perhaps unfair to single out Harold Camping. He is far from being the only person to make end time predictions. In fact he is one of many people over the centuries who have made false predictions regarding the return of Jesus. Here is just a small chronological list of others who have foolishly thought they knew when Jesus would return.

- Hippolytus of Rome predicted the year 500
- Sandro Botticelli said Jesus would return in 1504
- Henry Archer proposed the year 1700
- John Wesley the founder of Methodism predicted 1836
- Charles Taze Russell went with the year 1874
- Herbert W. Armstrong had several attempts, 1935, 1943, 1972 and 1975
- Hal Lindsay author of the influential "The late great planet earth" (1971) thought that Jesus would return some time in the 1980's and no later than 1988
- Edgar Cayce, Ed Dobson and Frank Cherry all plumped for the year 2000
- Jeane Dixon decided the year 2020 was the right time

This is a wide and disparate group of people. In terms of what they believed and taught there are some serious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m. Despite the differences however they all share one thing in common. They were all wrong in their predictions. They were not only wrong in the dates they proposed but also, and this is much more fundamental, they were wrong in even attempting to predict the date. There are some very good reasons why we should never get caught up in date setting. Let's turn to today's passage and discover why this is the case.

해롤드 캠핑(Harold Camping)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는 그의 긴 인생 동안 기억될 만한 중요한 일을 많이 했겠지만, 슬프게도 그가 실제로 기억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Harold Camping 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라디오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휴거와 환난의 시작을 잘못 예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5 년에 84 세의 캠핑은 환난이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가 2011 년 5 월 21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2018 년에 이 땅에 재림하심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청취자들에게나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광고 캠페인에 거의 1 억 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약 5000 개의 광고판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메시지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2011 년 5 월 21 일 이 다가왔고 지나갔습니다.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처음에 캠핑은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심판의 날(얼마나 편리한지)이라고 말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2012 년 캠핑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지만 그때쯤 그의 명성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라디오 회사는

그와의 연결을 끊었고 그는 다시는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성경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3 장 32 절입니다.

아마도 Harold Camping 만을 지적하는 것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종말을 예측한 유일한 사람이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수세기에 걸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잘못된 예언을 해 온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지 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연대순 목록이 있습니다.

- 로마의 히폴리토스는 500 년을 예언했습니다
- 산드로 보티첼리는 예수가 1504 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헨리 아처(Henry Archer)는 1700 년을 제안했습니다.
-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836 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 Charles Taze Russell 은 1874 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허버트 W. 암스트롱(Herbert W. Armstrong)은 1935 년, 1943 년, 1972 년, 1975 년일 거라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 영향력 있는 저서 'The late Great Planet Earth'(1971)의 저자 Hal Lindsay 는 예수께서 1980 년대 언젠가, 늦어도 1988 년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Edgar Cayce, Ed Dobson, Frank Cherry 는 모두 2000 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Jeane Dixon 은 2020 년이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들이 믿고 가르쳤던 내용에 있어서는 중대한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측이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날짜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날짜를 예측하려던 시도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짜 설정에 얼마나 지루해야 할 몇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32 “But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The reason why we should not indulge in date setting for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is very simple. It's because the exact time and date is a secret known only by God the Father. God in His infinite wisdom is keeping that information to Himself. He has not divulged this knowledge to either the **angels in heaven** or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the Son)**. Therefore since no human being is privy to the exact date they are in no position to try and guess. In my introduction I ran through a list of people who made predictions regarding Jesus' second coming. Their incorrect guesses made them look foolish, and also brought the Christian faith into disrepute. When people make bold claims that then prove not to be true what impression does it leave upon unbelievers? They quite understandably think that Christians are idiots who believe in a fairy tale. The people making these end time predictions may have been well intentioned, perhaps they really believed that God had given them a sign, but in reality they were all false teachers.

Now don't misunderstand the point I am making here. Certainly we should look and learn from signs around us. It is right that we engage our minds and make tentative connections between world events and what scripture reveals. For example alliances between Russia, China and Iran are highly

suggestive. Also the rise of hatred and anger around the world towards Jews is also predicted in scripture. So witnessing such things strongly indicates the way things are going, but as to a precise time and date only God knows.

Some wonder when they read this verse how or why it was that Jesus didn't know the exact time or date of His second coming. After all, the Bible clearly teaches that Jesus is God (John 1:1, 14), and we know that God is omniscient (all knowing). So it seems strange that Jesus would say that He did not know when He would return. How do we answer this puzzling conundrum?

Let's be honest. The exact nature of the trinity is a mystery with which Christians have struggled for centuries. If you understand it fully then please come and explain it to me. We acknowledge that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make up the three members of the Trinity. They are all God, They are all One, but equally they are not each other. We see this illustrated in the ways in which Jesus interacts with God the Father whilst He is on earth. He submits His own will to God the Father. For example in Mark 14:36 we read,

**And He said, “Abba,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away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What you may wonder does this have to do with this seeming lack of knowledge here? Let me explain. The key to understanding Jesus' lack of knowledge in this matter rest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incarnation.

When the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became a man, or took on human flesh He remained fully God, but He also took on a true human nature. He became fully man. That's why we refer to Him as the God-man. Jesus retained all the attributes of divinity, yet, as a man, He voluntarily restricted their use.

This was part of the “self-emptying” spoken of in Philippians 2:6–8.

**6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nsider i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7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coming in the likeness of men. 8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These verses tell us that when Christ entered our world, He willingly laid aside the privileges that had been His by right in heaven. Rather than stay on His throne in heaven, Jesus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This meant that in many practical ways He veiled or didn't fully reveal His glory. We also know as Mark frequently demonstrates that He willingly occupied the position of a humble servant.

It is true that on certain occasions He publicly showed His divine knowledge and power (John 2:25; 11:43–44). But it's important that we recognise that on those occasions, Jesus' demonstrations of His divinity were directed by the Father. God willed Him to have and reveal this knowledge. However on other occasions, He had no such directive from the Father, and He kept His glory veiled. But most importantly on all occasions, Jesus faithfully obeyed the Father's will.

So on this particular occasion when Jesus said He did not know when He would return, He was humbling Himself and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God did not will Him to have this knowledge and so from the standpoint of His humanity He genuinely did not know the timing of His second return. So we might say that Jesus here voluntarily restricts His knowledge on this issue.

The important take-away from this verse is that Jesus says the timing is not for us to know. So we are not to engage in guessing or predicting. Anyone who claims to know the date or time of Jesus' return is, by definition, a false teacher. They are claiming to know what Jesus says cannot be known. Let us continue.

**32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지만 아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자신만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지식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삼위일체의 제2위(아들)에게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예언한 사람들의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추측은 그들을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었고, 또한 기독교 신앙에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대담한 주장을 하고 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깁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은 동화를 믿는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다고 정말로 믿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모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요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주변의 표적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정신을 집중하여 세계 사건과 성경이 밝혀 주는 내용을 잠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옳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중국, 이란 간의 동맹은 매우 암시적입니다. 또한 유대인을 향한 전 세계의 증오와 분노의 고조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는 것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강력히 암시하지만,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어떻게, 왜 모르셨는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가르치고(요한복음 1:1, 14),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신(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물음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삼위일체의 정확한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씨름해 온 미스터리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셨다면 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이고, 모두 하나이지만, 서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방식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36 에서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길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나이다. 나에게서 이 잔을 치워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의 지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므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 부족을 이해하는 열쇠는 성육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즉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사람 **God-man** 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의 모든 속성을 유지하셨지만, 인간으로서 자발적으로 그 속성의 사용을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6-8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의 일부였습니다.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당연히 누리셨던 특권을 기꺼이 내려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 머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여러 실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셨거나 완전히 나타내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마가가 그분이 기꺼이 겸손한 종의 지위를 차지하셨다는 것을 자주 보여 주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자신의 신성한 지식과 능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25; 11:43~44).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 지식을 갖고 계시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지 않으셨고,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경우에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경우에 예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지식이 있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인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그분의 지식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합시다.

### **33 Take heed, watch and pray; for you do not know when the time is.**

Given the uncertain nature and timing of the end time events we are to remain awake, alert and ready. This is one of the major recurring themes throughout the Olivet Discourse. This doesn't mean that we are to give up everything and spend all our time staring up at the sky. Rather its a warning to be in a state of readiness or preparedness. Let me describe to you a situation which illustrates what I mean.

We all take for granted that electricity is provided to our homes, literally at the flick of a switch. We plug our appliances in and expect them to work. But of course the power grid can go down at any time. It's not as robust as we think. I can remember as a child growing up in the late 1970s in the UK a number of power cuts. They never lasted for very long, perhaps an hour or two at most. Initially they were a little shocking or scary especially if they happened at night. I can remember one occurring when I was taking a bath. But over time we began to see them as being quite exciting. My mother prepared for these eventualities by having a stock of candles and a box of matches under the sink. It ensured that we were never left totally in the dark. We were ready or prepared for a power failure.

This is the kind of readiness we are called to. One that is expectant and prepared.

We are awaiting Jesus' return to take us away at the rapture. This may occur at any time so let's be ready. Jesus now moves on to explain how we are to live until the time of His coming.

### 33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 때가 언제 인지 너희는 모른다.

마지막 사건의 불확실한 성격과 시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람산 설교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집에 전기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꽂으면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력망은 언제든 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여러 차례 정전이 되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최대 한두 시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특히 밤에 일어났을 때 약간 충격적이거나 무서웠습니다. 목욕을 할 때 정전되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싱크대 밑에 양초와 성냥 한 상자를 비축해 두어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완전히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휴거로 우리를 데리고 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비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 34 *It is like a man going to a far country, who left his house and gave authority to his servants, and to each his work, and commanded the doorkeeper to watch.*

We move on now to the second parable of the Olivet Discourse. The parable is exclusive to Mark. The parable concerns some servants and a doorkeeper. A doorkeeper or a porter was given the task of guarding or watching the entrance to a wealthy person's house. They would control who came into the house, and also take charge of any goods or deliveries that arrived. It's a position of great importance and responsibility and would only be given to someone in whom the master had great trust. The man, or master in the story is leaving his house to travel to distant country. He therefore leaves his servants with various tasks to do, and the doorkeeper is commanded to stay alert and keep watch.

I worked one summer at a hotel in Athens Greece. I did various jobs at the hotel, but for some of the time I worked as the night porter. I had to sit at the front desk from 11 pm until 7 am. I had several tasks to complete during my shift but mostly I was employed to keep watch, and control the front door. If someone knocked I had to assess who they were and what business they had before I either let them in, or told them to go away. The office chair was very comfortable. As the night wore on the temptation to have a little sleep always grew stronger. Just a 20-minute nap, who'd ever know? But, sadly I had to stay alert because the hotel owner was prone to turn up at any time. Upon his urgent rapping on the door I would need to very quickly rush down and open the door. If I was too slow or delayed he'd guess I had been sleeping and I'd lose my job. I needed to stay alert and keep watch. It is this kind of alertness to which we are called. Anyway back to the parable.

As always when we read a parable we need to probe deeper to uncover the underlying spiritual

message. What truth does the Lord Jesus wish to convey? Let's dig deeper.

Who is the “man” in the story? It is of course the Lord Jesus. He is leaving the earth to return to the Father's side. He will be away for some considerable time. It's been 2000 years, and we are still waiting. The servants and the doorkeeper represent the disciples and now believers. The house is Christ's church. The disciples were given the work or task of establishing the church. We are given the task of nurturing and caring for the church. We are to be engaged in this vital business whilst our master is away. How easy it is for us to neglect our duties. How easy it is to be drawn away by the worldly pleasures around us. How easy it is to lose heart and think that all is in vain. It is at such times that we are to remember the need to be alert and ready. Let us continue.

### 34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이제 감람산 설교의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몇몇 종들과 문지기에게 관한 것입니다. 문지기는 부자의 집 입구를 지키거나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하고, 도착한 물건이나 배달물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책임이 있는 위치이며, 주인이 큰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비유 속 남자, 즉 주인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종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고, 문지기는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저는 어느 여름날 그리스 아테네의 한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호텔에서 다양한 일을 했지만 한동안은 야간 포터로도 일했습니다. 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교대 근무 중에 완료해야 할 작업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부분은 감시하고 현관문을 제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평가한 후 들여보내거나 나가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의자는 매우 편안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잠을 좀 자고 싶은 유혹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20분만 잠을 자면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텔 주인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가 긴급하게 문을 두드리면 저는 빨리 달려가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너무 느리거나 지체하면 그는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깨어 있음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갑시다.

언제나 그렇듯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속 '남자'는 누구인가요? 물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는 상당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예정이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들과 문지기는 제자들과 지금의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집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우리는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주변의 세상적인 즐거움에 끌려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낙심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경계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합니다.

**35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is coming—in the evening, at midnight, at the crowing of the rooster, or in the morning— 36 lest, coming suddenly, he find you sleeping. 37 And what I say to you, I say to all: Watch!”**

The parable concludes, along with the Olivet Discourse itself with the command to **watch**. This is the Greek word *grēgoreuō* (gray-gor-yoo'-o). Depending on the context it might mean, "to stay awake," to "remain alert," or "to be vigilant." It's an important message and one that we need to listen to and obey. We know that Jesus will return. That is a fact. What we don't know is when. This is why vigilance is called for.

Jesus here seems to assume that the master (the “lord of the house”) returns at night. We know this because of the time terminology He uses. The Romans divided the night into four 3 hour watches or periods. The watches were referred to as evening (6-9pm), midnight (9-12pm), cock-crow (12-3am) and morning (3-6am).

For most of this time we are asleep in our beds. But not so night watchmen or guards. They need to remain awake and alert through the hours of darkness. In the ancient world, and still today night watchmen face serious punishment if they fall asleep when they should be on guard. In a similar fashion, every Christian is commanded to remain prepared and at work for Christ at all times.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begin chapter number 14. It begins with the plot to kill Jesus.

**35 그러므로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라. 집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37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 있어라!”**

이 비유는 감람산 설교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grēgoreuō*(gray-gor-yoo'-o)입니다. 문맥에 따라 이 단어는 "깨어 있다", "계속 경계하다" 또는 "경계하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하고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언제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주인(“집 주인”)이 밤에 돌아온다고 가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신 시간 용어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밤을 4 개의 3 시간 간격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녁(오후 6~9 시), 자정(오후 9~12 시), 닭 우는 시간(오전 12~3 시), 아침(오전 3~6 시)으로 불렸습니다.

이 시간의 대부분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경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대 시대나 오늘날이나 야간 경비원이 경계해야 할 시간에 잠들면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고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14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시작됩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1 Don't get caught being lazy**

I worked for a number of years in a sports centre. Every summer during the school holidays we ran

daily sports events for children. At first this involved just putting out the sports equipment and allowing the children to do as they wish. I thought we could offer a better more structured program. So I devised a whole month of different themed events. Me and my co-workers ran and organised the events. It was hard work but the children thought it was great and it was a great success. One day towards the end of the summer the boss of the sports centre came to see what we were doing. Unfortunately at the moment he arrived I was taking a short and well deserved break lying on an exercise mat. My boss was not impressed. As they say the optics were bad. He was later overheard saying that I did not work hard enough, and had not done enough for the children. Of course, it wasn't true. I had in fact provided them with a wonderful summer of fun. Had my boss visited at any other time he would have been pleased and impressed.

I give you this story because it provides an important lesson against laziness, or more specifically about being caught in laziness. When the Lord Jesus returns we don't want Him to find us “sleeping” or being lazy. In what ways might we be sleeping or being lazy?

Laziness can be expressed in two distinct ways in our Christian lives. Firstly it might be shown in us being physically lazy. Perhaps we are “too tired” to attend church regularly. Maybe we are reluctant to get involved in other areas of kingdom work because its tiring or requires an effort.

Secondly our laziness might be spiritual laziness. Perhaps we are not as dedicated or devoted to reading and studying God's Word as we ought to be. Maybe we are not praying as often as we should. Perhaps we have allowed ourselves to drift away from God.

Whatever lazy habits we may have developed they are not good. They make us unproductive servants in our master's kingdom.

We don't want to Jesus to arrive with us “lying down on an exercise mat.” John Wesley was once asked by a man as he left church what he would be doing if Jesus were to return tomorrow. He asked someone to bring him his very busy schedule. He then showed the schedule to his questioner. Pointing it out to the man he told him this is what he'd be doing tomorrow if Jesus were to return. In other words when Jesus returned He would find John Wesley busily doing God's Work. That's a good approach and I encourage you to take it.

저는 스포츠 센터에서 수년간 일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동안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매일 스포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장비를 내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내내 다양한 테마의 이벤트를 고안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행사를 운영하고 조직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큰 성공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어느 날, 스포츠 센터의 사장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운동 매트에 누워 짧고 당연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는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 나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위해 충분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가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에게 멋진 여름의 즐거움을 선사했었습니다. 제 상사가 다른 때 방문했다면 그는 기뻐하고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중요한 교훈, 더 구체적으로는 게으름에 빠지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가 “자고” 있거나 게으른 모습을 발견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게으른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까?

게으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육체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치게하거나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왕국 사업의 다른 분야에 참여하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해야 할 만큼 자주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으른 습관을 갖게 되었든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주인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종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운동용 매트 위에 누워” 있을 때 오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교회를 나가면서 존 웨슬리에게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시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매우 바쁜 일정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질문자에게 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 사람에게 스케줄을 가리키면서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난 이 일을 하고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그분은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좋은 접근 방식이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Steer clear of date setters**

As I mentioned in my introduction there have been no shortage of people trying to predict the date of Christ's return. It's actually a sign of incredible arrogance to even attempt such a thing. If the Lord Jesus,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didn't know the date then who are you to think you know it.

This hasn't stopped people from making pronouncements, writing books and having successful online ministries promoting their views.

As the times get worse, and more signs or global events point to the end expect to see an increase in these people. I want to warn you to be wary of such people. They may be very convincing. The arguments they present may be compelling. But don't be fooled. They are false teachers and their teachings are dangerous. Ignore them and stay vigilant as the Lord Jesus tells us.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시도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만하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중 제 2 위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 날짜를 모르신다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측하는 선언을 하고, 책을 쓰고, 자신의 견해를 홍보하는 온라인 사역을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화되고 더 많은 징조나 세계적인 사건들이 종말을 가리키면 이러한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위험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깨어 있으십시오.



